



◆녹십초 알로에 부산경남본부 직원 50여명이 사무실에서 불우 이웃돕기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다.

직장불심 모아 사랑의 바자회

녹십초 알로에 부산경남본부

직원 90%가 불자... 음식준비·판매 바쁜 하루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화제다. 특히 직원의 90% 이상이 불자인데 이들 모두가 바자회에 팔을 걷고 나서서 더욱 그렇다.

녹십초 알로에 부산경남본부에 근무하는 5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사랑의 바자회'가 11월 21일 열렸다. 이날 바자회에는 15명의 직원 모두가 불자인 법 일지사를 비롯 5개 지사의 모든 직원들이 참여했다. 고객들 상담하던 사무실은 신나는 음악과 식욕을 돋우는 음식들이 즐비한 장터로 변했다. 장대석 본부장이 직접 일일 판매원으로 나섰다 직원들도 음식을 만들고 불품

을 판매하며 하루 영업을 접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심부름을 자청한 이들을 위해 이날 하루는 고객들이 바자회를 찾아와 물건을 구매하는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좋은 일 한다는 소식에 고객들 마음까지 동한 것이다.

가끔 '녹십초 알로에'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회사나 는 질문을 받기도 할 정도로 불자들이 모여든다는 녹십초 알로에 부산경남본부. 한번도 녹십초 알로에의 이름을 내지 않았지만 범일지사 장일선 국장이 후원회장으로 있는 부산불교자비원의 봉사활동

에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왔다. 또한 장태석 본부장과 연제사 김홍순 지사장이 부산불교자비원 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오수복 범일지사 실장은 구치소 교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 도 수해로 집을 잃은 장애인 가족을 위해 1백만원을 후원한 것들 비롯, 정토회의 통일패지 키우기, 인도 결핵환자 살리기 등 모든 직원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바자회 수익금 2백만원은 성우원원생들을 위한 컴퓨터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사랑의 바자회는 앞으로 계절마다 열리며 불자들의 이웃사랑의 빛을 밝혀가 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양산 사찰학춤의 맥을 잇는 학산 김덕명 선생의 팔순기념 합동공연이 11월 22일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양산문화원이 주최하고 양산학춤보존회가 주관한 이번 공연은 통도사의 학춤, 승무, 바라춤과 전통 고전춤을 전승하고 한량무를 발굴하여 도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학산의 열정과 그 공을 기리기 위해 문화생들이 마련했다.

이번 무대에는 '지성승무'와 '양

양산 시찰학춤·전통인랑춤 인판

학산 김덕명 씨 팔순기념 대공연

산학춤', '한량무 극무' 등 주위에서 쉽게 감상하기 힘든 10개의 작품이 공연되며 학산 김덕명 선생도 직접 무대에 올랐다. 김덕명 선생의 독무로 선보인 지성승무와 박월산, 최찬수, 김순임씨와 함께 선보인 양산사찰학춤은 팔순의 나이를 잇는 학산

선생의 정통을 잇는 춤사위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한량무 극무는 도무형문화재 제3호인 한량무 한량춤 보유자 김덕명, 정행근, 서정남, 김연이, 최금순 씨와 이수자인 박월산, 김순임 씨가 무대에 올라 전통적인 춤사위를 선보였다. 이 밖에도 이날

공연에는 호걸양반춤, 경기민요, 가야금병창, 판소리, 연등바라춤, 삼도농악가락, 양산 유스오케스트라가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불교 중앙문화예술원 원장과 김해시립전통무용단 단장, 국악협회 경남도지부장 등을 역임한 학산 김덕명 선생은 양산사찰학춤, 연등바라춤, 지성승무 등의 맥을 잇기 위한 노력으로 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치매 등 노인전문요양시설 추진

통도사 자비원, 늦어도 내년중 개원

92년 설립돼 10여 년 동안 지역 노인복지 발전에 힘써온 통도사자비원(원장 오십)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통도사자비원은 기존 운영중인 요양시설의 3층과 4층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한편, 치매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문 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허가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통도사자비원은 늦어도 내년 중으로 노인전문 요양원을 개원하고 노인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부 인근 주민들

의 반대가 있지만 고통화 사회를 맞아 노인문제 해결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인 만큼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도사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7백여 평의 대지에 연면적 699평으로 건립되며 수용인원은 60명이다.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입소 가능하다.

천미희 기자



◆청소년 봉사단 '돌이하나' 팀이 자원봉사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용호복지관에 기탁하는 모습.

어려운 어른스 따뜻하게 보일러시설에 써주세요

자원봉사대회 상금 기탁

봉사활동으로 전국자원봉사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청소년들이 부상으로 받았던 상금을 11월 25일 용호복지관에 기탁했다.

'지역의 어려운 어른들의 보일러

시설을 해드리는 데 보태달라'는 계 청소년들의 청이었다. 동천고등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학생 20여명으로 구성된 용호복지관의 청소년봉사단 '돌이하나' 팀은 장애아동과 함께 일일대리 봉사활동으로 제 5회 전국 자원봉사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돌이하나는 장애아동의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장보기, 버스타기 등의 활동에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3기가 활동 중이다.

천미희 기자

美 수행자들 "매일 명상한다" 65%

대부분 정신건강 때문, "깨달음 위해" 3% 불과

미국인 불교 수행자들의 수행 강도가 한국 불자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불교의 근본적 가르침에 접근하기 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뉴욕불교> 이종권 편집장이 캔사스 선원과 위빠사나 그룹 'Free State Sangha'의 수행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수행을 '매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주일에 1회 이상 한다'는 응답도 35%나 됐다. 이는 한국 불자들이 사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절 수행'의 경우 '주 1회 이상'이 30%선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유아를 '교육의 주체'로 인식 지도

신안어린이집, 새교육기법 관심 끌어

지역 사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특수한 유아교육기법으로 도내 국공립보육시설의 견학대상이 되고 있다.

신안군 신안의 조계종 출복사(주지 일화스님)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신안 어린이집(원장 김정숙)은 지난 99년 4월 개원한 공립보육시설로 선진 보육프로그램인 '레지오에밀리아' 접근 양한 매체를 학습도구로 활용하며 유아들이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재고찰, 탐색하면서 사고를 변화시켜 나가는 학습 방법이다. 신안어린이집의 특수한 교육법은 개원 당시 65명이던 정원을 6개월 99명(3세~7세)으로 3년 만에 34명의 정원을 늘리는 호응과 교육 관계자들의 견학까지 이끌고 있다. 레지오

법 유아 교육을 도입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레지오에밀리아란 이탈리아 북부의 에밀리아에서 출발한 교육방법으로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어린이를 협동자로> <환경은 제3의 교사> <부모를 동반자>로 간주하는 교육원리로 유아를 교육의 주체가 되게 한다. 유아들이 관심을 갖는 다

에밀리아교육법은 자연환경과 인접해 있는 사찰의 어린이집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김정숙 원장은 "레지오에밀리아 교육법은 어린이를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인식한다는 면에서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법"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불교련 내년초 창립

관내 5개 불교회 6~7일 합동수련법회 동부·부평 등 미창립 경찰서에 영향줄 듯

인천 지역 경찰불자들이 하나로 뭉친다.

인천 중부, 강화, 남동, 공항, 서부경찰서 등 5곳의 경찰서불교회는 최근 중부경찰서 경승실에서 모임을 갖고, 이르면 내년 초에 '가칭'인 인천경찰불교연합회'를 창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교계가 미약한 인천 지역불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동부·계양·연수·부평 등 미창립 경찰서 불교회 결성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전망된다.

인천 중부 등 5곳 경찰서불교회는 이를 위해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강화 전등사에서 첫 합동수련법회를 봉행하고, 태고종 인천교구 중무원장 대은, 강화 전등사 주지 계승 스님 등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시행팀과 연합포교사 인천팀 등 전문포교사의 참여를 유도, 실질적인 법회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철우 기자

통증 잡는 비결!!

머지선을 해 보셨나요?

머지선이란?

머지선이란 영어로 '마법사, 마술사' 오술처럼 신기하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동의보감 내경편에 모든병은 기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며 통증도 기가 막히면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만물을 살아 숨쉬게 하고 물속의 기와 혈을 풀어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는 생체 에너지이다. 인체의 어떠한 통증도 원인은 기가 막혀서 생긴다는 것을 알면 통증은 너무 쉽게 잡을 수가 있다. 머지선을 통증부위에 갖다대면 통증이 완화되는 것은 머지선에서 기(氣)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누구든지 직접 해보기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 통증을 잡을 수 있는 순수한 자연법이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진액이 부족하면?

인체는 206개의 크고 작은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뼈와 뼈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을 관절이라고 하며 이것을 연결 또는 물렁뼈라고 하는데 이 관절에 기가 막히면 "뼈끼"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관절에 진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이것을 오래두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자동차나 기계는 사람이 손으로 윤활유를 적당히 조절해 주지만 우리 인체는 진액(津液)이란 물질, 일명 윤활유(潤滑油)라고 하는 미끄러운 액이 자동적으로 수분과 세포를 축축하게 유지해 주고 있다. 인체에 기가 막히면 진액의 공급이 중단되어 근육질이 경직되고 수분이 증발하여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통증을 느끼게 되지만 통증부위에 인위적으로 기(氣)를 소통시켜주면 진액이 다시 잘 돌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된다.

불신이 병을 키운다!

머지선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는 순수한 자연치유방법이며 인체에 부작용이 없으며 누구든지 한번만 테스트 해 보시면 통증에 대한 고민이 좋은 인연이 될수 있지만 광고 내용에 대한 불신으로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통증의 종류를 가리지 마시고,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건강에 대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머지선 연구원장 서상태

서울 수도권은 직접 오셔서 체험해 보십시오!!

※ 지방에는 자료 우송해 드립니다.

※ 본 광고 내용을 모방한 가짜가 있으니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십시오!!

충로3가 국일관 옆 중앙고시텔 2층

서울 02)2263-5135

평생전화 : 050-2331-0627

머지선연구원

※ 머지선 체험 사례 공모 : 채택되신 분에게 머지선을 드립니다.

사찰에서 초청시 무료 출장 강의 및 체험해 드립니다!!

※ 지방무료체험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오니 문의전화 바랍니다.

※ 자연요법은 인체에 부작용이 없습니다.